

<OCW신한 강의자료>

기악 I

유아교육과 박주원

<OCW신한 강의자료>

기악 I

(3주차)

유아교육과 박주원



연주를 위한 음악 기초 이론 2



악보상의 용어와 연주기법

1. 빠르기말 (Tempo Signature)

빠르기말은 악곡 전체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것과 악곡 일부분만의 빠르기를 규정하는 것이 있다.

★ 악곡의 부분적 빠르기를 나타내는 말

rit. (리타르단도) - 점점 느리게

accel.(아첼르란도) - 점점 빠르게

a tempo (아 템포) - 본래의 빠르기로



★ 곡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말

Largo(라르고, 아주느리게) - Adagio(아다지오, 매우 느리게)

- Andante(안단테, 느리게) - Andantino(안단티노, 조금

느리게) - Moderato(모데라토, 보통 빠르게) - Allegretto

(알레그레토, 조금 빠르게) - Allegro(알레그로, 빠르게) -

Vivace(비바체, 매우 빠르게) - Presto(프레스토, 아주 빠르게)



2. 셈여림표(Dynamic Signature)

(1) 전체적인 셈여림표

<i>pp</i>	: pianissimo	매우 여리게
<i>p</i>	: piano	여리게
<i>mp</i>	: mezzo piano	조금 여리게
<i>mf</i>	: mezzo forte	조금 세게
<i>f</i>	: forte	세게
<i>ff</i>	: fortissimo	매우 세게

ppp - pp - p - mp - mf - f - ff - fff



(2) 일시적인 셈여림표

sf, sfz(sforzando) : 특히 세게 v, > (accent) : 특히 세게

fz (forzando), rf, rfz (rinforzando) : 특히 세게

fp (forte-piano) : 세게 곧 여리게

subito piano : 갑자기 여리게 subito forte : 갑자기 세게

(3) 셈여림을 변화시키는 표

crescendo (cresc.) : 점점 세게

decrescendo (decresc.) : 점점 여리게

diminuendo (dim.) : 점점 여리게

poco a poco cresc. : 조금씩 점점 세게

poco a poco dim. : 조금씩 점점 여리게



3. 악상과 주법에 관한 나타냄말 (Expression Signature)

Agitato(아지타토) : 성급하게

Animato(아니마토) : 생기있게

Amabile (아마빌레) : 사랑스럽게

Appassionato(아파쇼나토) : 열정적으로

Brillante (브릴란테) : 화려하게

Cantabile(칸타빌레) : 노래하듯이

Con brio (콘브리오) : 활발하게

Dolce (돌체) : 부드럽게

Espressivo (에스프레시보) : 표정을 살려서



Grazioso (그라지오소) : 우아하게

Marcato (마르카토) : 힘주어 똑똑하게

Maestoso (마에스토소) : 장엄하게

Scherzando (스케르잔도) : 경쾌하게

Sempre (셈프레) : 항상 , 계속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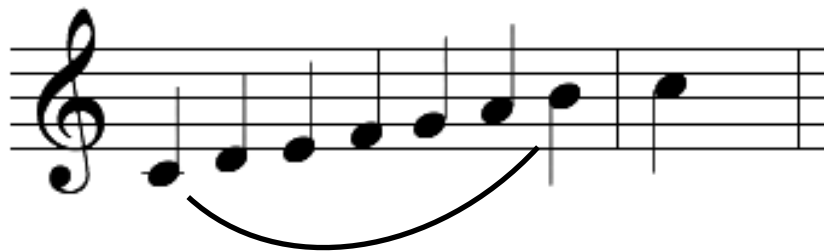
Tranquillo (트란퀸로) : 고요하게



4. 연주기법을 위한 여러 가지 표


(1) 레가토(Legato)


음과 음 사이가 끊어지지 않게 부드럽게 연주하라는 뜻이며
높이가 서로 다른 음을 연결하는 것을 이음줄(Slur)이라 하고
높이가 같은 음들을 연결하는 것을 붙임줄(Tie)이라 한다. 붙임줄로
연결된 음들은 뒤의 음은 연주되지 않으므로 당김음에 많이 사용



(2) 스타카토(Staccato)

스타카토는 음을 짧게 끊어서 연주하라는 뜻으로 연주자의 손의 기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스타카토의 유형을 표현할 수 있다. 스타카토 주법은 때로는 활기를, 때로는 긴장감과 묘한 뉘앙스를 창출하여 음악의 개성을 돋보이게 하는 기법이다.

[기보법] 

[연주법] 



(3) 테누토(Tenuto)

음의 길이를 충분히 끌어서 연주하라는 뜻이다.

테누토를 표시하는 기호는 다음 두 가지로 나타낸다.



(4) 페르마타(Fermata)

페르마타는 늘임표라고도 하는데 음표나 쉼표 위에 기재되면 그 음의 길이를 2~3배 늘여서 연주하라는 뜻으로 사용되며 Da Capo와 함께 쓰게 되는 겹세로줄 위에 기재되면 악곡의 끝냄을 알리는 기호로서 사용된다.



(5) 옥타브표(8va)

두 옥타브 이상의 거리에 있는 음표들은 덧줄이 너무 많이 붙어서 악보를 읽기에 불편하므로 옥타브표를 사용한다.

음표 위에 있을 때는 실제로 그 음보다 완전8도 위의 음을 연주하고 반대로 음표 밑에 있을 때는 완전8도 아래음을 연주한다.

[기보법]

[연주법]

The image displays a musical score with two systems of staves. The top system is labeled [기보법] (Notation) and the bottom system is labeled [연주법] (Performance). The notation includes the following ele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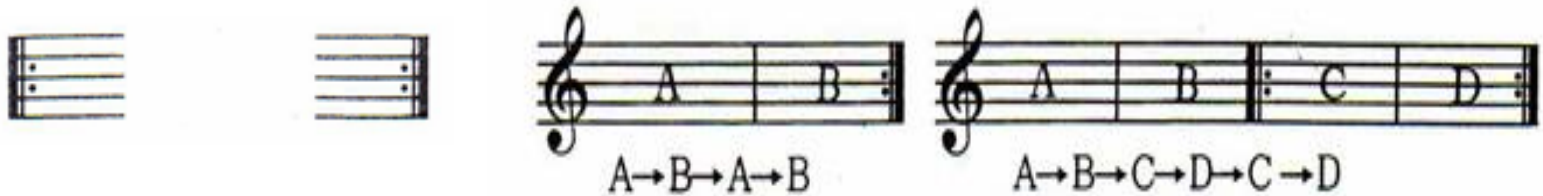
- 8va**: A dashed line above the staff indicating an octave shift.
- 8va alta**: A label indicating the high octave.
- 8**: A number below the staff indicating the octave shift.
- loco**: A label indicating a local or ad libitum section.
- 8va bassa**: A label indicating the low octave.
- 8**: A number below the staff indicating the octave shift.

The score shows a sequence of notes in both treble and bass clefs, with the performance instructions indicating how to play notes that are shifted by two octaves.



(6) 도돌이표(Repeat Mark)

① $\text{||}::\text{||}$ 이 표는 일정한 마디를 되돌아가서 반복하여 연주하라는 지시이다.



② $\text{||} \overset{1}{\text{---}} \text{:||} \overset{2}{\text{---}} \text{||}$ 에 의한 표기

도돌이표를 실행한 다음 다시 반복할 때는 Prima volta(1)은 연주하지 않고 Second volta(2)를 연주한다.



A→B→C→A→B→D



(7) 다 카포(Da Capo, D.C.)와 피네(Fine)

악곡이나 악절 끝 부분에 D.C.(다 카포)가 표시되어 있으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연주를 계속 하라는 뜻이며 반복 후에는 Fine 또는 늘임표가 있는 곳에서 곡을 끝마쳐야 한다.



A musical staff with a treble clef showing five measures labeled A, B, C, D, and E. A double bar line is placed after measure C, with the word "Fine" written below it. At the end of measure E, there is a double bar line with "D.C." written below it. To the right of the staff, the sequence "A→B→C→D→E→A→B→C" is written.

(8) 달 세뇨(Dal Segno, D.S.)

악곡 중간에 D.S. 라는 표시가 있으면 Segno 표기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반복하고 겹세로줄 위에 Fine에서 끝난다.



A musical staff with a treble clef showing six measures labeled A, B, C, D, E, and F. A Segno symbol (an 'S' with a stylized 'g') is placed above the staff between measures B and C. A double bar line is placed after measure C, with the word "Fine" written above it. At the end of measure F, there is a double bar line with "D.S." written below it. To the right of the staff, the sequence "A→B→C→D→E→F→C→D" is written.



음 계

1. 음계의 의미

음계란 어떤 음을 기초로 하여 음을 일정한 질서에 따라 높이의 차례로 배열한 것을 음계라고 한다.

음계의 배열은 시대의 흐름이나 민족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성 있는 음계가 존재한다.

서양음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음계는 장음계와 단음계이다.



(1) 장음계 (Major Scale)

장음계란 어떤 음을 기초로 해서 2도씩 쌓아지는 음계이며 8개의 음을 배열 할 때 3~4음 사이와 7~8음 사이가 반음이고 나머지는 온음, 즉 2개의 반음과 5개의 온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느 음에서 시작하던지 이 배열의 순서는 변하지 않는다.



온음	온음	반음	온음	온음	온음	반음	
1	2	3	4	5	6	7	8
으뜸음	웃으뜸음	가온음	버금딸림음	딸림음	버금가온음	이끔음	으뜸음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그러면 1음이 도(C)가 아닌 솔(G)음으로 시작하는 음계,
즉 사장조 음계를 배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2	3	4	5	6	7	8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사	가	나	다	라	마	올림바	사

“솔”로 시작하는 음계를 만들어보면 3~4음과 7~8음이 반음이
되어야 장음계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위와 같이 “솔”로
시작하는 사장조 음계에서 3~4음은 반음이나 7~8음은 반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7음에 올림표(#)를 붙여서 반음을
만들어 주어야 온전한 사장조 음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조표에 의한 음계가 형성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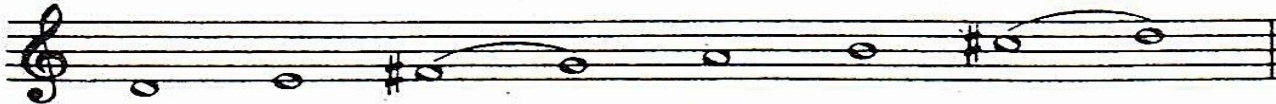


- 그러면 이렇게 형성된 올림표가 붙은 장음계를 살펴보자

사장조 장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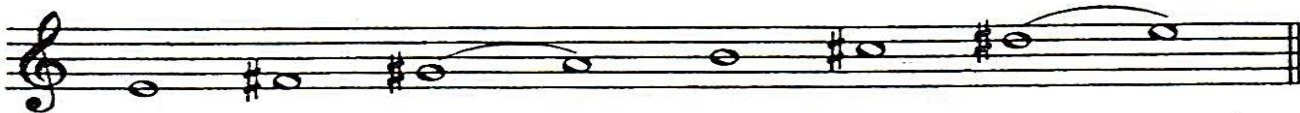
라장조 장음계



가장조 장음계



마장조 장음계



- 이렇게 형성된 올림표가 붙은 장음계의 조표를 살펴보면 항상 조표의 마지막 올림표가 그 음계의 제7음인 이끔음에 붙으며 #이 붙은 그 다음 음이 으뜸음이 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사실로 우리는 조표를 보고 으뜸음을 알아내고 음계를 판단 할 수 있게 된다.



★ 올림표가 붙는 순서 : 파 → 도 → 솔 → 레 → 라 → 미 → 시



★ 올림표 장음계

다(도)를 바탕으로 하여 완전5도(딸림조) 위의 음을 차례로 올라가면 사, 라, 가, 마, 나, 올림바, 올림다를 으뜸음으로 하는 장음계가 구성된다.

이와 같은 장음계를 올림표로 된 장음계라고 한다.

완전5도 위 ----->

C → G → D → A → E → B → F# → C #

(다장조) (사장조) (라장조) (가장조) (마장조) (나장조) (올림바장조) (올림다장조)



• 다음은 내림표가 붙은 장음계를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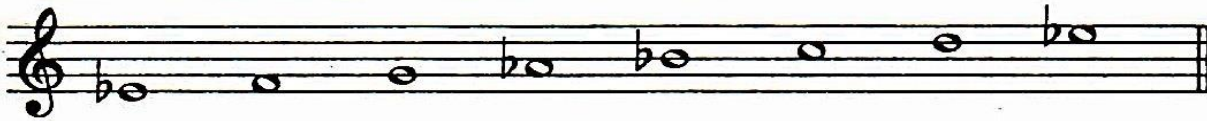
바장조 장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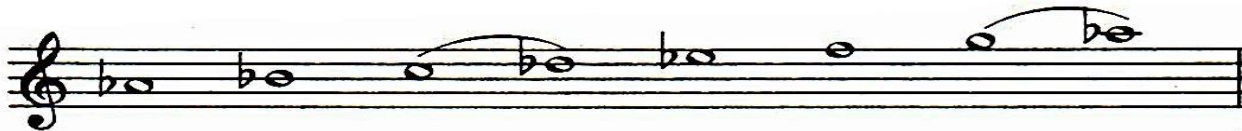
내림나장조 장음계



내림마장조 장음계



내림가장조 장음계



- 이렇게 구성된 내림표가 붙은 장음계의 조표를 살펴보면 항상 내림표(b)이 붙는 음은 으뜸으로부터 4번째 음이 된다.
b이 붙는 순서대로 생각할 때 마지막 b 바로 전의 b 붙은 음이 으뜸음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실로 우리는 조표를 보고 으뜸음을 알아내고 음계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The image shows a musical staff with four measures, each representing a different scale. Above the staff, labels indicate the 4th degree and the tonic (1st degree) for each scale. Below the staff, the scale names are written in Korean.

4번째음	4번째음	으뜸음	4번째음
바장조	내림나장조	내림마장조	내림가장조

★ 내림표가 붙는 순서 : 시→미→라→레→솔→도→파



★ 내림표 장음계

다(도)를 바탕으로 하여 완전5도 아래의 음(버금딸림조)을 차례로 선택하여 가면 바, 내림나, 내림마, 내림가, 내림라, 내림사, 내림다를 으뜸음으로 하는 장음계가 구성된다.
이와 같은 장음계를 내림표로 된 장음계라고 한다.

완전5도 아래 ----->

C → F → B \flat → E \flat → A \flat → D \flat → G \flat → C \flat

(다장조) (바장조) (내림나장조) (내림마장조) (내림가장조) (내림라장조) (내림사장조) (내림다)



★ 조표가 붙는 순서를 쉽게 알아내는 법

음계의 종류와 으뜸음을 나타내는 말을 “조” 라고 하고 으뜸음의 이름과 음계의 이름을 합쳐서 조이름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조이름 뒤에 장조 또는 단조라는 말을 붙이고 외국어로는 major 또는 minor 로 표기하며 알파벳으로 음이름을 표기할 경우는 장조는 대문자로 단조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조표가 붙는 순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붙는 순서 -----> <----- b이 붙는 순서

fa → do → sol → re → la → mi → si



수고하셨습니다

(3주차)

